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5월 31일(주일) 제1297호

가스펠 프로젝트, 가정 신앙 문화 만들기

6월부터 성인과 차세대 동일 주제 설교 듣고, 가정 소그룹 나눔
교재는 두란노서점 및 홈페이지에서 연령 따라 구입



차세대 부모와 자녀가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로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다.

6월부터 부모가 차세대 성경교사가 된다. 온누리교회는 6월 첫째 주 토요일예배(6월 6일)와 일요일예배(7일)부터 12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인 예배와 차세대 예배에서 동일한 주제(One Point)로 설교를 듣고, 두란노서원에서 출판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1: 위대한 복음> 교재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그룹 나눔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1: 위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연대기식 성경공부 교재다. 모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안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예수님의 계보', '마리아의 찬양', '예수님의 탄생', '성전에 계신 소년 예수', '세례를 받으심' 등 12개 주제를 바탕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만나고, 나눈다.

두란노서점이나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

서 연령에 따라 유치부,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고등부용 교재를 구입하면 된다. 부모와 보호자는 청장년용 교재를 구입해서 소그룹 나눔을 실시하면 된다. 두란노서점에서는 교재를 10% 할인해서 판매한다. 교회에서는 차세대 교재(유치부,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고등부용)에 한해서 교재 구입 비용 50%를 추가 지원한다. 다음은 차세대 사역본부장 노희태 목사와의 일문일답.

가스펠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왜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가스펠 프로젝트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전 세대가 동일한 주제(One Point)의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각 가정에서 교재를 활용한 소그룹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차세대 예배당 예배와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워진 신앙양육과 소그룹 나눔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마련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의 신앙양육이 중요해진만큼 가스펠 프로젝트와 연계된 활동을 통해 가정 신앙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 나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꿈과 꿈평은 차세대 예배 영상에 이어 소그룹 나눔 가이드 영상이 제공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영상을 활용해서 자녀와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파워웨이크는 차세대 예배 설교가 교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배 후 가정 소그룹 나눔을 위한 2-3개의 질문이 제공됩니다. 그 질문 내용을 활용해서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가랑비에 옷 젖듯 자라납니다. 매일 조금씩 자녀와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져주세요.”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6월 24~26까지 각 캠퍼스 본당
3일, 6일, 7일, 10일 캠퍼스 접수

2020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이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6월 24일(수)부터 2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여성사역본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리아행전 장소를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으로 결정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해 각 캠퍼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캠퍼스 성도들만 출입할 수 있다(등록인만 가능). 강사는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다. 참가신청은 캠퍼스별로 6월 3일(수)과 10일(수) 수요일예배 이후, 6월 6일(토)과 7일(일) 예배당 주일예배 이후 각 캠퍼스에서 받는다.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대리 접수, 온라인 접수, 전화 접수, 목회 지원 접수는 받지 않는다. 회비는 1만 원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7(3201)

각 캠퍼스는 목회지원실 별도 문의

5월 비전헌금

2억8천2백만 원 선교 지원

예장통합 7개 교회 미국 한인사회 긴급 지원

지난주(5월 24일) 봉헌한 5월 비전헌금 모금액 2억8천2백만 원 전액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외부 파송 선교사 및 선교사역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예장통합 소속 7개 교회(새문안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잠실교회, 주안장로교회, 창동염광교회)는 성금 15만 달러를 모아 지난 5월 19-21일 LA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에 기부했다. 이 성금은 미연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한인 교포들에게 가구당 500달러씩 긴급 지원된다.

6월부터 입교 및 성인세례식 재개

6월 28일부터 입교 및 성인세례식이 재개된다. 입교 및 세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는 5월 31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63

고사(枯死)위기 농어촌교회를 도웁시다!

연천 황산교회와 파주 금파교회의 딱한 사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크다. 말 그대로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그 어려운 와중에 더 어렵고 힘든 곳이 있다. 바로 미자립 농어촌교회다. 미자립 농어촌교회는 고령화와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안 그래도 크게 어려웠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탈출구를 도무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에서는 고사(枯死)위기에 놓인 농어촌교회 사연을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교회는 연천 황산교회와 파주 금파교회다. 두 교회 모두 경제적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곳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연천 황산교회 조준호 목사, 전미라 사모(위)와 파주 금파교회 장창환 목사, 허기옥 사모(아래)

경기도 연천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더 가까운 곳이다. 한반도 휴전(休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있고, 선사시대 유적과 습지가 발달돼 철새(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민통선 지역도 있다. 민통선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엄격한 검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 블랙박스 촬영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외지고 험난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황산교회(경기도 연천군 중면 군중로 902번길 16-1)와 성도들이다.

단 한 명의 십일조가 황산교회 1년 전체 예산

황산교회는 조준호 목사와 전미라 사모가 섬기고 있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2005년 황산교회에 부임했다. 조 목사는 원래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던 선교사였다.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사역했었지요. 자녀들도 조선족학교가 아니라 일부러 중국인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신장이,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지금 제 신장은 30%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께서 조심 안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경고하시더라고요.”

건강상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조 목사 부부의 마음에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조 목사 부부에게 북한과 가까운 황산교회는 안성맞춤인 사역지였다. 북한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망설임이 있었다. 북한 선교에 그토록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있었던 조 목사 부부가 망설일 정도로 교회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황산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젊은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면서요. 그 눈물에 저와 아내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황산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힘든 건 현실이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외로운 것부터가 힘들었다.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딸이 한 달 동안이나 서울에 가고 싶다고 울었을 정도였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 결핍이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땅을 빌려 농사짓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현금할 여력이 없었다. 황산교회에서 유일하게 현금할 수 있는 성도는 작년에 장로로 장립된 오인택 장로밖에 없었다.

“오 장로님께서 농사지어 수확하시고 연말

에 십일조로 내는 현금이 황산교회 1년 수입의 전부입니다. 그 현금으로 황산교회 1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덮쳤다. 빨간불이 들어온 재정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였다.

“얼마 전에 어르신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9인승 승합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를 후원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승합차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연천 황산교회를 온누리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다. 가장 필요한 도움은 재정적 지원이다. 황산교회는 민통선 마을 복음화를 담당하고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다. 이 지역에 20가구 주민 4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이 황산교회 성도다. 황산교회가 아직 절반이나 남은 주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냐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교회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의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협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8861-1735

21년 동안의 헌신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않아...

자유로를 타고 한탄강을 따라 1시간여 달리면 금파교회(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2리 384-9)가 나온다. 장창환 목사가 21년째 섬기고 있다. 금파교회 주변에는 118가구가 살고 있다. 가구 수로만 보면 그리 작은 시골마을은 아닌데 금파교회 성도는 고작 세 명밖에 없다. 장창환 목사가 젊은 날을 바쳐 21년 동안이나 전도에 힘을 쏟아 부었지만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성도가 적은만큼 경제적 결핍도 심각한 상황이다. 금파교회 재정상태가 얼마나 열악했으면 이단조차 포교를 포기했을 정도다.

“어느 날 한 분이 금파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기에 친절하게 대답해드렸더니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천지 추수

꾼이었더라고요.”

장창환 목사가 금파교회에 온 건 2000년 10월이다. 모든 상황이 열악했지만 자신만의 사역지를 갖게 됐다는 기쁨과 행복함이 더 컸다. 딱 한 달만 행복했다. 그 이후 21년 동안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이 장 목사와 그 가족들을 짓눌렀다. 우선 전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 고통스러웠다. 장 목사가 처음 부임할 당시 금파교회 성도는 차매 어머니를 모시는 정신지체장애인 한 명이였다.

“그 성도님 집에 가봤더니 온통 오물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제 어머니랑 아내가 걸레로 한참을 닦고 그랬어요. 그 차매 어르신이 ‘배고프다, 밥 달라, 너무 춥다’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교회에 찾아오셨고요. 하나밖에 없는 성도님 어머니여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장 목사 부부는 마을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해도 교회 출석까지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능력 부족인가’ 싶어 자괴감마저 들고 힘들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도 힘들었지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도 미안했다.

“아이들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해요. 고등학생 딸이 중학생 때 성적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교육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닌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장 목사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온누리교회다. 고양은 평공동체 양학선 집사와 성도들이 2011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이웃리치를 오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종탐도 수리해주고, 마을 잔치도 열어주고, 공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파교회는 낡은 교회와 사택 정비부터 해야 한다. 종탐과 색 바랜 교회 지붕 도색도 해야 한다. 종탐에 걸린 간판은 교체해야 한다. 교회에 화장실도 없다. 사택은 예배당 강대상과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사춘기 자녀들에게 방 한 칸 내주지 못하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지내고 있다.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금파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문의: 010-7236-3274

사회선교부: 02-3215-343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써 종합적인 판단력이 부족할 때 단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단순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성숙한 신앙이요, 숭고한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삶의 복잡함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견고하게 바로 서 있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단순함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한 영혼의 삶입니다. 시편 62편은 단순한 영혼의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히브리어 ‘ak’, 영어로는 ‘alone’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시편 62편의 ‘-만’에 해당합니다. ‘ak’라는 단어 다음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ak’로 시작되면서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1절은 ‘오직 하나님만’, 2절은 ‘오직 그분만’이라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첫 문장도 ‘ak’로 시작해서 1절과 2절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이라고 반복합니다. 전체 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랑하는 영혼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과 9절도 역시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두 구절은 네 구절과 정반대 의미의 ‘ak’입니다. 4절을 보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끌어 내리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생각만 하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9절을 보면 “저 울에 달면 돌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에서 ‘한낱 한숨에’라는 표현에도 ‘a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헛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헛벨은 ‘입김’, ‘한숨’, 혹은 ‘헛됨’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영어 단어 but,

only로 번역됩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나 비천하게 여기나, 재물이 많아지나 적어지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낱 한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만 의지하는 인생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ak’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오직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순함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고, 그밖에 모든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과 걱정, 사회가 아무리 흥흥하고, 복잡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단순함에 이르는 영혼으로 승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1~2절).

다윗을 흔드는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여러 사람의 공격이 있었던 때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모함, 거짓된 공격,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무수한 공격이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조용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침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 없이 ‘오직 하나님만’,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등의 단어를 열거함으로써 시를 쓴 것은 매우 강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침묵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면 불평하게 되고, 염려의 말, 불안의 말, 두려움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묵으로 자기 영혼의 능력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편 62편에는 두려움, 낙심, 불안 등의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62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요청, 요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문장 하나로 끝납니다. 다윗은 단순한 영혼이 누리는 능력, 단순한 영혼의 힘, 단순한 영혼의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혼이 아닌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다른 사람과 상황만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과 상황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데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어떤 상황,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의 비판에 예민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매우 심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3~4절).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속으로 저주하는데 겉으로는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잘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고, 뒤로는 모함하고, 거짓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모함하고, 결국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에 빠져 있는 이들은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영혼은 상황에 쉽게 휩쓸리는 영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함을 경험하면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함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훈련해서 이끄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둘째,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외부 상황과 사람에 도취되어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기만족,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들은 작은 풍파에도 쉽게 동요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올바르게 찾았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신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으로 삼고 의지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판단으로 모든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불의함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누구보다 많이 발견합니다. 작은 실수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기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영적 표어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만’에서 ‘만’이 오늘 시편 62편의 ‘ak’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단순한 영혼이 되어서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이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한 사람은 겸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고 했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경험과 대화를 더는 자신과 연결하지 않는다. 아예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만둔다. 이것이 망아(자신을 잃어버림)로 인한 자유다. 자신을 망각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의 단순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이다”(마 22:37~38)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4면에 계속)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의 힘

“습관처럼 적고 본능으로 기록하라”

메모, 삶뿐만 아니라 세상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그리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일부 사람들만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심각한 오해이자 착각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리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가 크리스천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힘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메모하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메모가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메모가 가진 힘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메모광이 있을 뿐이다”(아리스토텔레스).

메모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나타내는 글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메모를 천재가 되는 기본 관문이자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처럼 세기의 천재들은 공통적으로 메모광이었다. 메모가 곧 그들의 일상이었다.

시대를 바꾼 천재들의 공통점 ‘메모’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약용, 에디슨...

시대와 국적, 직업과 나이 모두 다른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메모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했다는 점이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론을 주장하며 현대 물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천재 물리학자다.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메모의 힘이었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했다. 대학도 재수해서 간신히 들어갔다. 대학졸업 후에는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그의 천재성이 발현된 것은 특허청에 취직하면서부터다.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 메모를 보면서 생각을 집중했다. 그는 직접 적은 메모를 시각화해야만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러한 신념과 노력이 훗날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메모광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미술, 과학, 건축분야 등에서 위대한 작품을 여럿 남겼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로 태어나 정규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인물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끊임없이 적었다. 생전에 무려 3만여 장에 달하는 메모를 남길 정도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메모를 엮

은 책 <코텍스 해머>를 2014년 빌 게이츠가 3,100만 달러(약 372억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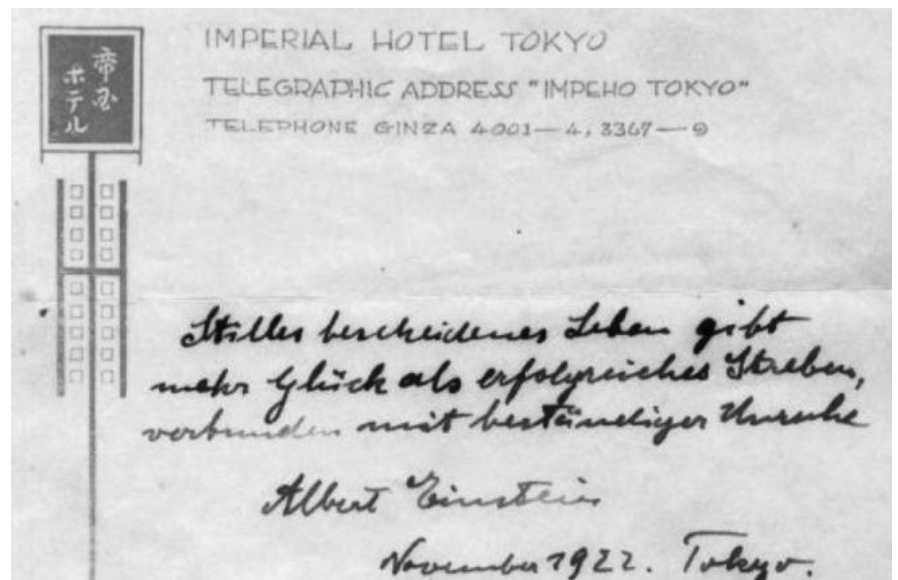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메모광으로 유명하다. 그는 “눈으로 읽지 말고 손으로 읽어라. 부지런히 기록해야 생각이 튼실해지고 주견이 확립된다.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적고 본능으로 기록하라”고 가르쳤을 정도로 메모를 중요하게 여겼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동안 메모해둔 자료를 모아 무려 5백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평생 1,093개의 특허와 발명품을 내놓은 에디슨도 “자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라”고 했을 정도로 메모광이었다. 에디슨이 평생 기록한 메모노트가 무려 3,200권이냐 되고, 메모와 일기 분량만 500만 장이 넘는다고 한다.

메모는 기록의 힘이자 창의성을 부르는 과정

1974년 미국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Elizabeth F. Loftus)가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에게 사실과 다른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두 자동차가 부딪치는 장면을 본 실험 참가자들 중에서 한 그룹에게는 “충돌했다”고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박살났다”고 말한 다음 “깨진 전조등을 봤는지”를 질문했다. 그러자 “박살났다”고 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충돌했다”고 들은 실험 참가자들보다 깨진 전조등을 봤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박살’이라는 단어만 듣고 ‘깨진 유리창’이라는 기억을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은 주관적이다. 컨디션에 따라, 환경에 따라, 듣는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 기억상태가 달라진다. 때로는 잘못된 기억을 머릿속에 담기도 한다. 그러나 메모는 객관적이다. 글씨체가 예쁘지 않아도, 메모하는 종이와 필기구 종류가 달라도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게다가 메모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10년, 20년 지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건도 메모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2017년 단 한 장의 메모가 무려 18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는데, 90여 년 전 아인슈타인이 쓴 “조용하고 겸손



1922년 아인슈타인이 일본 도쿄 방문 당시 호텔 직원에게 팁 대신 준 메모. 경매에서 18억원에 낙찰됐다.

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 성공을 쫓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내용의 메모였다. 메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

메모의 힘은 기록의 힘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화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랐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괴뢰집, 다초점 렌즈, 소방차 발명, 미국 최초의 대출 도서관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창설, 미국철학협회 창립, 미국 독립선언문과 헌법 기초를 만드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었던 데는 메모의 힘이 컸다. 그가 1771년부터 1789년까지 19년 동안 메모한 내용을 정리한 <프랭클린 자서전>이 그 기록의 역작이다.

또한 메모는 창의성을 부르는 과정이다. 불현듯 스치는 생각들을 저장할 수 있고, 그것들이 나중에 창의적 결과물이 되기도 한다.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한 방송에서 밝힌 메모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메모할 도구가 없어서 냅킨 위에다 고추장을 찍어 메모를 했다고 한다. 그의 작업실에는 아예 메모지통을 따로 만들 어뒀다고 한다.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기록한 메모지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다. 음악가 슈베르트 또한 악상이 떠오르면 때로는 식관에, 때로는 입고 있던 옷에 적었다고 한다.

메모하면 돈도 절약할 수 있다. 시장 가서 사려고 했던 물건이 기억나지 않거나 이것저것 담다보니 바구니가 가득 차버린 일을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장 보러 가기 전에 사야 할 목록을 적으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다.

메모를 쉽게 실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가장 먼저 나만의 메모수첩을 만들어야 한다.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수첩이면 된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수첩에 붙이는 방법도 좋다. 둘째, 무엇을 메모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일상이 곧 메모이기 때문이다. 책이나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이나 기억에 남는 대사,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적으면 된다. 직장인에게는 업무일지 적는 것을 추천한다. 오늘 해야 할 업무리스트와 우선순위, 주간업무계획표 등을 메모해두면 업무효율이 그만큼 높아지고, 시간관리도 잘 할 수 있다. 셋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다. 종이와 펜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메모할 수 있다. 메모 앱이나 사진, 녹음 등의 방법으로 메모하면 된다. 넷째, 애써 메모한 것을 다시 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주일, 한 달, 3개월, 1년 단위로 자신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면서 항목별로 분류해두면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등을 알아채고 보완할 수 있다.

크리스천에게는 주일설교 말씀을 메모할 것을 강력 추천한다.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하면 그만큼 영성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메모수첩도 괜찮고, 스마트폰도 좋다. <메모성경>(성서원), <열린노트성경>(아가페), <굿데이 여백성경>(생명의 말씀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상에서 메모하기 실천은 그리 어렵지 않다. 종이와 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메모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크리스천의 힘이 될 수 있다.

전문가 기고

명품을 만드는 디테일, 메모에서 나온다

부부관계, 자기계발, 디지털 시대, 신앙생활에 메모는 필수



김대형 집사
(가정사역공동체,
소통과연결 코칭연구
소 대표)

코로나19가 생활 전반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두 아들과 주말마다 축구를 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레 축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손흥민 선수가 쓴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브에서 여러 영상도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박지성 선수가 책을 세 권이나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축구선수들의 책을 보면 프리미어리그나 월드컵 대표팀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경기에서 누가 어시스트를 해줬고, 어떻게 골을 넣었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참가한 모든 경기에 대한 메모를 남겨놓았기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는 초등학교 때 같은 감독에게 축구를 배웠는데, 그 감독은 축구일기를 쓰게 했다고 한다. 한국 여자축구 간판스타 지소연 선수가 초등학교 때 쓴 훈련일지를 곁한 일기가 기사에 나온 것도 본 적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만든 비결 중 하나라고 본다.

청와대 출입을 오래하면서 여러 대통령들을 관찰한 기자가 쓴 칼럼에 대통령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는데 ‘새벽기상, 운동, 메모하는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단언하건데 디테일은 메모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나는 이번 기고를 통해 자기계발 전문가로서 생활 속 메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방법(Tip)을 제안하고 싶다.

나의 메모가 도움이 되는 순간

며칠 전 결혼 15주년 기념일을 보냈다. 결혼하고 10년쯤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떠오르지 않았다. 두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쉽게 떠올랐다. 떡강정, 치킨, 초콜릿, 고르곤졸라피자, 순대, 떡볶이 등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10년을 같이 산 아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평소 아이들 위주로만 사오라고 하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부터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고고학자가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에 있는 부족을 관찰하듯 평소 어떤 것에 손이 가는지 유심히 지켜봤다.

아내는 도넛 가게에서는 먼치킨 6종세트를, 동네 마트에서는 웨하스를, 편의점에서는 체다 치즈맛 나초칩을, 동네 제과점에서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카페에서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주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수시로 스마트폰 ‘에버노트’ (메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하나씩 기록해나갔다.

가끔 본의 아니게 사고를 쳐서 싸우거나 어색한 관계가 며칠 갈 때가 있다. 그때 그 메모를 참고해서 적당한 선물을 하나씩 사갔다. 그러면 어색한 관계가 전보다 훨씬 빨리 해결이

표로 2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나는 ‘배워서 남 주자’를 모토로 꾸준히 배우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100개 넘는 수료증을 받았다. 그 중에는 온누리교회 순장사관학교, 일대일 양육자 과정 등 다양한 양육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감사한 것들도 하루에 다섯 가지를 꾸준히 적고 있는데 2600일 이상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나에게 의미 있는 숫자들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은 운전할 때 속도계와 연료계를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지

운동한 날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만 봐도 운동량이 한눈에 들어온다. 초록색 스티커가 점점 많아지면서 1월부터 체중이 한 달에 1kg씩 줄고 있다. 이번 기회에 체질도 바꿔보려고 한다.

디지털 시대 메모하는 습관 만들기

스마트폰 사용자는 ‘에버노트’ 앱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한다. 전에는 손바닥만 한 메모장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녹음이나 앱을 이용해서 메모를 남긴다.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메모를 남기는 방법이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책을 집필할 때 녹음기에 내용을 녹음하면 비서가 그 내용을 타이핑 친 것을 보고 수정한다고 한다. 녹음기를 이용해서 책을 쓴 것이다.

요즘은 ‘노션’ (notion)이라는 앱 사용자가 늘고 있다. 유료였는데 얼마 전에 무료로 바뀌면서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여러 메모 앱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당분간 이런 막강한 앱은 나오기 어렵다”고 평한 사람이 있을 정도다. 아직 메모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성경통독 할 때도 메모를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죽기 전에 성경통독 한 번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항상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루기만 하다가 평생 동안 성경통독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작정하고 성경통독을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씀을 15분 정도 소리 내어 읽었다. 눈 뜨면 신문이나 책을 보던 것에서 무조건 성경 먼저 읽었다.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하는 날이 아니면 꾸준히 지켰다. 성경 읽기표 앱을 활용해서 읽은 장들을 체크했는데, 마치 통장 잔고가 쌓이듯 읽은 성경 퍼센트 올라가는 재미에 빠져 생애 첫 성경통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죽기 전 성경통독을 100번 하는 것이다.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해서 하루에 여섯 장씩 듣고 성경 읽기표 앱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0.5%씩 숫자가 올라간다. 주 6일을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3%, 한 달이면 12%를 통독할 수 있다. 성경통독을 작정한 성도님들께 자신의 진도를 메모하고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알려 드리고 싶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메모를 생활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한다.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단언하건데 디테일은 메모에서 나온다.
메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 많다.”

되었다. 메모하는 습관 덕분이다.

또 다른 도움이 된 메모는 ‘아내가 싫어하는 것 리스트’였다. 살아보니 아내를 감동시키는 건 어렵지만, 열받게 하기는 참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아내는 졸음운전, 급정지, 한강대교 건널 때 다리 다 건너서 우측으로 끼어들기를 싫어한다.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열 안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나의 메모가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다.

자기계발에도 도움을 주는 메모

군대에서 처음 시작한 한혈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 ‘죽기 전에 내 몸무게만큼의 피를 남기자’는 계획으로 150번을 목표로 현재까지 123번 했다. 1년에 6번 한혈하는 것을 목

표가 된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몸무게를 1~2kg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했다. 그 비결 중 하나가 체중을 매일같이 재고 기록하는 것이다. 작년 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 초기가 나와서 이번 기회에 과체중에서 벗어나려고 마음 먹고 기업에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OKR’을 활용해보기로 했다. OKR은 목표(Objective)를 이루기 위한 핵심결과(Key Result)를 정하고, 분기별로 목표에 달성하는 방법이다. 나의 목표는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는 것이고, 핵심결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과 체중 5kg을 감량하는 것으로 정했다. 점검 방법은 책상용 달력에 체중을 매일 기록하고,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낸다. 운동을 안 한 날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운동을 30분 미만한 날에는 노란색 스티커를, 30분 이상

아마존 28년 헌신 선교사 “원주민 80% 코로나 감염”

페루 지역 한원강 목사, 현지 회복 위한 긴급 기도 요청

현재 아마존강 상류의 원주민들 중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현지 의료시스템 붕괴로 서로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전염이 확산되고 사망자가 길가에 버려지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원주민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원강 선교사가 22일 밝혔다.

한 선교사는 22일 GMA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인디오들을 위한 전 세계 교회들의 긴급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한원강 선교사 또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2주째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중에 있다.

한 선교사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강 상류 지역에 의사와 간호사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현지 의료시스템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고, 이에 현지의 인디오들 또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이다.

한 선교사는 “제가 있는 사역지에서 저와 함께하는 18명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다들 자가격리해서 병을 이겨내고 있지만, 여기에 의료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어떠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원주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수라장”이라고 말했다. 한 선교사는 “온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자기가 걸린 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

어가고 있다. 공식적으로 예상하기로는 80%가 걸렸다고 보고 있다”면서 “산소가 없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시체를 바깥에 그냥 내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선교사는 “남은 의료진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어서 간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면서 “의사만 18명이 사망했고 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모두 합하면 180여 명이 죽었다. 완전히 의료시스템이 무너져서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도를 요청했다.

한 선교사는 나우타라는 마을 인근에 선교센터 부지를 확보해 그동안 원주민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펼쳐오고 있었다. 한원강 선교사는 사역지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페루 수도 리마에서 비행기로 북쪽으로 2시간을 이동하면 이키토라는 도시가 나오고, 여기서 또 차로 2시간 남쪽으로 이동하면 읍정도 크기의 나우타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 나우타에서 3km정도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현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선교사가 있는 곳은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종족들이 살고 있고 외부의 접촉이 거의 없는 미전도 종족들이 깊은 정글에 있다. 이에 한 선교사는 이들을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국인 최호 선교사로 해나가고 있다.



한 선교사는 “인디오 원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미전도 종족이 많아 이곳에 센터를 잡고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현지의 많은 인디오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에서조차 손을 못 쓰고 있다”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선교사는 3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2주 전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한 선교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하루에 네댓 번씩 온 몸에 통증이 몰려오는데, 머리를 죄어오는 듯 한 고통과 온몸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처음보다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있다. 처음에는 말하기조차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주민들에게까지 전해

진 경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브라질에서 지난 2월 26일 첫 확진자가 보고됐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3월 중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브라질 정부 산하 기관인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과 벌목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감사가 느슨해진 것을 기회로 원주민 거주지역에 직접 들어가 작업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시켰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에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올해 1분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796km²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대원 기자(크리스천투데이)

*이 기사는 크리스천투데이의 허락을 받아 전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양육 - OBC로마서

OBC로마서 과정은 온누리교회에 등록한 지 8년 만에 듣는 나의 첫 양육 과정이다. 양육 과정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영아부 예배를 드리다보니 번번이 기회를 놓치곤 했다. 아이들 양육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다보니 나의 양육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교회 출입이 제한되면서 양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오픈됐다. 덕분에 나 같은 육아맘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열여덟 살, 학생부 시절 주일마다 전도 사임을 통해 로마서 강해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말씀의 새로움과 마음 깊이 깨달아짐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다. 그때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됐다. 이번 OBC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20년 전 느꼈던 말씀의 신비로움과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로마서 첫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 복음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복음은 처음부



배기운 집사가 온라인 양육 OBC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다.

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복음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롬 1:5) 주신 요정이라는 사실이 큰 감동이었다. 믿음생활은 나의 노력과 책임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내게 이 심플한 복음의 정의는 큰 자유함을 얻는 계기였다. 복음은 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 믿음은 나의 선택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에게 주

시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감동으로 시작된 로마서 강의는 매주 더 큰 깊이와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의롭다고 여겨주심’이라고 말한다. ‘칭의’는 의롭다 여겨주심이며, ‘구속’은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한 사건이며, ‘화목’은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얻게 된 은혜이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목사님이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파고들어 설명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성경 속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 나 역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롬 3:10),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처럼 유월절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롬 3:25),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른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다(롬 3:3). 다윗과 함께 죄 사람의 복을 고백할 수 있다(시 32:1).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모태신앙인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어느 부분을 들어도 잘 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로마서 강의를 들으며 눈이 커지고 귀를 세우게 되는 깨달음의 순간이 강의마다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 같은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혹시 오랜 신앙생활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오랜 시간 교회를 찾지 못해 목마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 양육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도약의 기회를 얻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 배기운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20년 전 감동을 다시 느끼며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공동체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

우리 가족이 시간을 맞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가정예배를 다음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우리 가족에게 가정예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다. 할 일이 끝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시간이 맞을 때 그때서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가정예배가 숙제처럼 찾아왔다. 자녀들이 속한 차세대에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나눠준 가정예배 안내서를 활용하기도 하고, 책도 한 권 사서 나눠보고, QT책으로도 시도하면서 여러 형식을 취해봤다.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씩 쌓이다보니 어느 순간 가정예배가 우리 가족의 일상으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족이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아이들은 부쩍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해 했고, 예배의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가정예배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식어갔다. 그 무렵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 출연시키셨다. 프로그램 제목과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 마리아처럼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김태희 성도 가정.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정예배보다 소중한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가정예배를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예배를 우리 가정에 굳게 된 계기는 가정사역공동체에서 진행하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이었다.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가정예배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썼다. 매일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 우리 가족의 습관이자 일상으로 자리 잡게 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이들은 물론 우리 부모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요즘은 아이들이 가정예배 시간을 챙긴다.

"오늘 가정예배 하는 날이에요~ 어서 오세

요~"

첫째 아이에게 "왜 가정예배가 좋아?"라고 물으면 "가족이 함께하니 행복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는 듯하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보다 더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우리 부부다.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힘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풀어가고 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예전에는 분명 시간이 없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시간을 내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 시간을 지켜내기란 어렵다. 하지만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 마리아처럼(눅 10:42) 우리 가정도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귀한 가정예배를 지켜낼 것이다.

/ 김태희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사회선교부 - 이웃사랑팀

지난 주일(5월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먹거리와 생필품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몇몇 성도들이 그 상자에 담긴 물품들을 예쁜 종이봉투에 옮겨 담으며 포장했다.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이하 이웃사랑팀)이었다.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웃사랑팀은 지난 3월 말부터 독거노인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포장해서 배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웃사랑팀이 이어오던 독거노인 가정방문 돌봄사역에 어려움이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매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던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 독거노인 가정방문 돌봄사역이 중단되면서 이웃사랑팀은 어르신들이 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등을 걱정했다. 어떻게 하면 독거노인들을 계속 도울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다 '긴급 반찬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박주현 집사가 이웃사랑팀의 긴급 반찬 서비스를 설명했다.

반찬과 마음까지 전달하는 '긴급 반찬 서비스'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긴급 반찬 서비스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울 지를 고민하다가 가장 중요한 끼니 해결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긴급 반찬 서비스는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담근 김치와 간단한 밑반찬, 간편 조리식품, 떡 등을 준비해서 매주 배달하는 사역입니다."

이웃사랑팀은 2주에 한 번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40여 가정을 방

문했다. 이웃사랑팀이 찾아오는 날이면 어르신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린다. 박주현 집사는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들었던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마음에 박혔다고 했다.

"반찬을 전해드리러 갔는데 한 어르신께서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한 마디가 제 마음에 박혔어

요. 마음이 얼마나 아렸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은 저희가 배달하는 반찬뿐만 아니라 마음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반찬 서비스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온정이자, 마음과 마음을 잇는 서비스입니다."

이웃사랑팀의 긴급 반찬 서비스는 지난 5월 24일 종료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나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긴급 반찬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웃사랑팀의 독거어르신 돌봄사역은 계속 이어진다.

"긴급 반찬 서비스는 끝났어도 이웃사랑팀의 독거노인 섬김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는 달리 전화 방문 및 대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려 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성도님들과 1다락방 1사역으로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는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문의: 010-8949-4019(박승식 팀장)

010-9802-2395(이철원 총무)

“끝까지 예수 사랑 전하는 바로 그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주민 선교의 전망과 방향성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특히 산업과 노동현장의 변화가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노동시장의 엄청난 변화에 따라 온누리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국내 이주민 선교에도 그 영향과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주민 선교 최전방에서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온누리M미션 노규석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주민들의 노동환경은 단순 노동 일자리는 위축되고, 유학생과 화이트칼라 외국인들의 수요와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의 미래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온누리M미션을 담당하고 있는 노규석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이주민 사회가 많이 위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통계로 보면 2019년 250만 명이던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20년 3월 220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30만 명이나 유출되었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막 터지던 초창기에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대거 출국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자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편이 끊기고, 비자면제 및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에도 국내 이주민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터를 벗어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주민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까지 각종 단체에서 마스크를 공급해주고, 진료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리쇼어링’ 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주민들의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이주민 사역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세계화와 리쇼어링을 쉽게 표현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국내로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겠지만, 이주민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해외 공장을 국내로 들여올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지금도 더 싼 임금의 국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접국인 미얀마, 캄보디아에도 한국 기업의 공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제조업 경험이 있는 이주민들이 더 싼



“코로나19가 아무리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임금을 주는 여러 국가에 세워지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의 제조업 경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기업들은 이주민들을 글로벌 파트너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익혀나가야 합니다.”

노동환경의 대표적인 변화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가시적으로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업용 로봇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요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은 금방 이뤄질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나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실직한 많은 한국인들이 3D 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고, 로봇이 농업에 대체할 만한 기술과 그 기술을 관리할 인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특히 농촌에는 아무리 스마트 팜이 생겨난다고 해도 일손이 부족할 것입니다. 러시아권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농업경험이 많은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이주민 농촌공동체를 꾸려도 효

과적 일거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주민들의 노동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민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면서 유학생과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외국인들은 증가할 것입니다.”

유학생, 화이트칼라 외국인에 대한 이주민 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유학생과 화이트칼라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와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만 더 많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화이트칼라 외국인들은 주로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가정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마다 온누리M센터가 뻗어나가고 있지만, 각 캠퍼스에서 유학생과 화이트칼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역 대학교를 찾아가 주요 유학생들의 국가와 문화 등을 파악해서 맞춤 섬김을 제공하면 효과가 탁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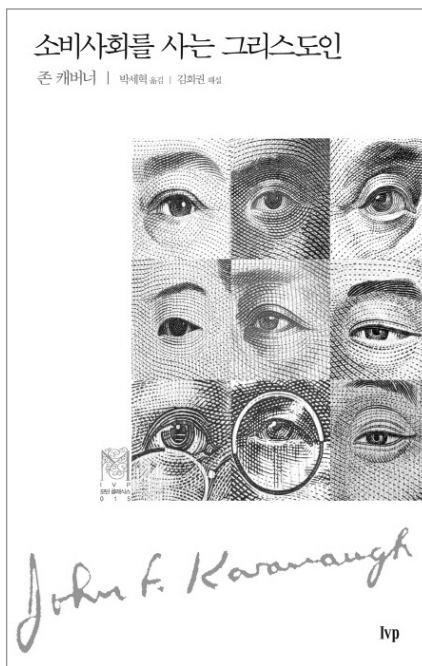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주민 사역 핵심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공동체’입니다. 모든 이주민들에게는 관심 가져 줄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이주민들에게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교회만큼 그 역할을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서로 관심 갖고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주민 사역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이주민들이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책 읽어주는 목사

크리스천의 성경적 소비를 위하여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존 캐버니 저 | IVP | 19,000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경제행위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크리스천이라면 오늘날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물질과 소비’에 대하여 어떠한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할지도 전적 물음에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이 물음에 대한 기독교적 대답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이 가진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미국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도 고민해보고 적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자는 인간의 몸과 영혼까지 상품으로 간주하고 사고 파는 최악의 소비 사회인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거룩한 저항, 자발적 소외와 고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에 바탕을 둔 변혁적, 실천적 삶과 그러한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생활 방식에 대한 한국 사회의 막연한 동경, 미국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대한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서의 메시지는

독자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충분히 귀 기울여 볼 만하다.

본서는 작게는 12장, 크게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물건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데서 유사한 ‘구원감’을 맛보는 소비주의 위상숭배 사회를 진단한다. 물질숭배주의적인 삶, 경제적인 위상숭배에 종속된 사람들의 노예상태에 대해 도전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비사회의 프로그램화에 저항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에 의해 규정되고 쓰고 버려져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대체할 수 없는 인격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2부에서는 1부의 문제인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주의와 물질숭배의 극단으로 내달린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대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결국 이

에 대한 삶의 대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자기 욕망 절제, 불편 감수, 이웃 사랑을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는 ‘사회선교’라는 개교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다. 자부심을 느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사회 안에 있고 분리될 수 없다. 공간적 의미를 뛰어넘어 존재의 의미 자체가 그렇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가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 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는다. 그 믿음의 걸음에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전과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한효 목사
(Pole2대학부)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전도가 어려워요”

답: “전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혼돈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갑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언택트(Untact) 기간에 더욱 필요한 것은 콘텐츠(contents)입니다. 비대면과 대면을 지혜롭게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되, 전도의 콘텐츠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이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아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노래가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어 일상이 정지되고 무너졌다. 온종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들리는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할뿐 아니라 전도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위축되게 만든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구원이다.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막을 수는 없다.

전염병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행 1:8). 그러나 세상의 안전 또한 생각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복음만 들고 나가 세상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할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멈춤의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붙어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나는 코로나 사태를 보내며 늘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소리 내어 읊조렸다. 집 안에서도, 집 앞 공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걸으면서도 작은 성경책을 끼고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렸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복음에 강력히 붙들려야 한다. 복음의 본질을 놓친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 우리 스스로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고, 행하실 것을 말하며 높이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다.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며 최첨단 과학, 최고의 권력과 재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혼돈과 허무함을 무엇인가로 채우려 한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하다. 공허함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며 비대면과 대면을 지혜롭게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선 평소 전화나 SNS, 책이나 먹거리 등을 활용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청과 공감하는 능력이 필수 조건이다.

나에게는 명절에 작은 선물을 보내며 평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 있다. 최근 전화로 안부를 물었더니 뇌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다. 자신을 날라리 신자라고 하는 그에게 나는 이사가야 41

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읊조리며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와 메시지로 점검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인에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고백을 듣게 됐다. 놀랍게도 혹이 자라지 않고 있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뻐했다. 요즘은 전화로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비대면 전도도 관계만 형성되면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 세대도 전도를 위해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전도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복음에 내가 먼저 붙잡혀서 비대면과 대면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저자)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성도 섬기는 목사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입니다. 목사 안수시 때 목사님께서 하였던 말씀도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께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기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 정성진 목사(서빙고 차세대)

내 목숨보다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도 모르게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벌써 30년이 되어갑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될 거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목사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목자입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그런 목사를 꿈꾸며 평생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 최대홍 목사(여호수아공동체)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많은 분들의 섬김과 기도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늘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청훈 목사(평택 온누리교회)

사랑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사역자로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안수식에서 설교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가슴에 불을 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불, 영혼을 사랑하는 불을 품는, 그런 목회자가 되십시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과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재 목사(서빙고 차세대)

공감소비운동 5월 31일 종료

다락방장 사역보고서 6월 14일까지 제출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실시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5월 31일(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에는 총 342개 다락방이 참여해서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부활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서빙고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은 동두천 임마누엘선교교회에 생필품과 전도용품, 요셉공동체는 길벗교회에 노숙인 전도용품을, 마포공

동체 베드로다락방은 삼동소년회에 생필품과 간식거리를, 김포공동체 소망다락방은 김포강화밀알선교단에 코로나19 응원박스를,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은 서부 이촌동 은혜교회에 노숙인 구호식품을 전달했다. 공감소비운동은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다락방장은 6월 14일까지 사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사회선교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형영 기자 hha0@onnuri.org

허브대학부 여름 선교 ‘배남프’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 학습지원

허브대학부가 ‘배남프(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온라인 화상채팅 프로그램(Cisco Webex, Zoom, Meets 등)을 이용해서 공동체와 연결된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 1회, 두 달 동안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초등과목은 영어 문법, 수학, 한국사, 독서 토론, 국어

(책읽기), 중등과목은 수학, 영어, 생물, 사회, 고등과목은 영어, 과학, SAT, 실용음악이론(취미)이다.

배남프 교사도 활동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5월 31일(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재 및 필요 물품들은 공동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02-3215-3724

NGO 더멋진세상 몽골 2차 농업프로젝트

식생활 개선 등 풍성한 열매

NGO 더멋진세상이 몽골 브리야트족 바잉동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2차 농업프로젝트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2차 농업프로젝트에 참가한 주민들이 감자, 당근, 양

배추, 비트, 옥수수, 토마토 등의 작물을 판매해서 소득이 증가되고 있고, 육식위주의 식생활을 개선해서 건강까지 덤달아 좋아지고 있다.

2019년 1차 농업프로젝트에는 60여 가구가, 올해 2차 농업프로젝트에는 10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남양주 온라인 아웃리치 ‘두 증인의 부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온라인 아웃리치 ‘두 증인의 부활’을 실시한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기념 부흥 집회를 지원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부흥집회 영상을 찍어 보내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 집회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20일, 27일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5월 20일 토요일예배,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 토요일예배에서 영상을 촬영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CGNTV, 5월 31일 방영

CGNTV가 가정의 달 특집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5월 31일 오후 8시 10분에 방영한다. 다섯명의 아빠들과 자녀들이 출연해서 아빠들만의 가정예배 인도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4일 방영된 가정의 달 특집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서는 다섯 명의 아빠들이 설교 본문을 바탕으로 성경을 선보였다.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는 유튜브 채널 및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드라이브인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

양재 현주차장, 온누리교회 유튜브 및 CGNTV

온누리교회가 예배당 주일예배와 함께 드라이브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병행한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88.5MHz)에 맞춰 설교를 듣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배다.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에 드린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려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해야 한다. 바코드를 미리 발급받고 예약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고, 예배당 차량 250대를 선착순 마감한다. 안전수칙도 있다. 급속 자동차 안에 머물면서 성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자동차 창문을 열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진행을 위해 빠르게 출차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참여할 수 있다. 토요일예배 1~3부, 일요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토요일 없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차세대, 대학청년부(홀리스타 포함), 외국어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 사랑부(장애인예배) 주일예배는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동체 순장모임, 순예배, OBC 성경공부,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진 123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상담센터 온라인 상담 실시

화상 또는 전화상담, 구글폼에서 상담신청서 작성

온누리상담센터가 한시적으로 화상 및 전화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리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온라인 상담은 대면상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상담은 ZOOM(화상채팅 서비스)을 활용한다. ZOOM 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구글폼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이메일, 상담 경험, 원하는 상담 주제, 가능 요일, 방법(전화, 화상)등을 꼭 기입해야 한다.

문의: 서빙고 02-793-2997

양재 02-570-7536

구글폼 서빙고 <https://forms.gle/xEYaDpwSjRoEnbxNA>
양재 <https://forms.gle/zVy8FH6WM6iGBQVn7>

전문가 기고

코로나로 정서적 고통을 겪는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길목에 서서

감정에 민감하고, 솔직하게 반응해주고, 돌봐주기를



배시은 박사
(온누리상담센터 슈퍼
바이저, 한국상담학회
1급 전문상담사)

각 분야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창궐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다.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독교 상담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상담을 주로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상담이 자연스럽게 상담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상담은 내담자(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상담자에게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우선 상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내담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제공이 어려워졌다. 내담자는 집 혹은 상담을 받는 공간에 자신 이외 누군가가 상담의 내용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어려워진다. 또한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는 상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날말보다 행동으로 뜻을 주고 고받는 것)가 온라인 매체 너머로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매체상태에 따라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화상채팅 프로그램으로 하는 상담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 회기 상담은 요원해진다. 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Rapport: 라포)가 대면상담에서만만큼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 상담자가 상담의 내용을 다룰 때에도 시공간의 제약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지면 상담의 효과도 동반 하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상담자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폐쇄된 내담자의 심리·사회·영적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온누리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전화, 화상)을 개설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상담실을 폐쇄했지만, 끊이지 않는 내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서다. 내담자들은 “나를 비롯해 내 가족들이 코로나로 아프면 어떻게 하나?”, “외국에 있는 가족이 걱정 된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 두렵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 코로나를 옮긴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가족이 심한 불안과 두



려움을 보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확진됐을 때 가족들과 분리되어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나?”, “코로나로 집안에 있게 되어 외롭고 우울하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무기력하다” 등의 내용을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메르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신종 전염병 상황은 걱정, 우울, 불안, 정서적 혼란 및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Emotional Distress)를 초래하며, 그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건강 문제, 특히 수면문제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이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정서적 디스트레스 즉, 정서적 고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거주 지역, 지각된 건강수준, 어린 자녀 및 고연령 가족의 동거, 삶의 질 등)과 사회적 요인(외출을 못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등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전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 신뢰, 전염병에 대한 일반대중의 의식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개인의 특성 중에서 ‘삶의 질’만이 유일하게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이다. 개인의 삶의 질은 앞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을 돌볼 때 고려해야 할 내담자의 심리·사회·영적 영역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의 심리·사회·영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기독교인의 심리·사회·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 우울감에 대한 대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 안에서의 부분적 일상회복과 변화된 일상

의 수용이다. 격리 공간에서의 거주나 타인과 연결될 수 없는 고립과 단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의 일상생활을 잃은 상실감을 준다. 그러나 바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대처는 상실감을 극복하는데 힘이 된다. 예를 들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기는 어렵지만, 야외에서 개인운동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대면으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으로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을 갖는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대처는 ‘인식하기, 표현하기, 수용하기, 대안찾기’ 과정이다.

걱정과 불안의 예를 들어보자. 본인 스스로 걱정하고 있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불안을 느낀다고 인지하기 어렵도록 생각이 많아진다든지, 불필요한 행동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하는 모습으로 불안에 미리 대처한다. 이때 본인의 불안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아,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마음을 알아준다면 불안은 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은 그 상태로 있게 된다.

불안한 내 마음을 어딘가에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나의 불안을 표현해도 좋은 성숙하고 안전한 상대가 있다면 그들에게 표현해도 좋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나의 불안을 말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제가 불안해요”라고 입 밖으로 꺼낸 한마디로 나를 압도했던 불안하고 짝 막힌 느낌은 폭 작아지고, 나의 불안은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여진다. 그리고 나면 불안한 대상을 향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문제)인가?’ 등의 이성적 사고를 시작한다. 코로나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있다. 이는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불안이다. 나와 하나님 앞에 있던 불안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정화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정화 기법은 호흡하기를 통해 신체를 이완하는 방법이다. 이에 더해 성경 묵상, 찬송 등 기 등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불안을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묵상하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다.

셋째, 코로나로 소원했던 공동체의 재연결이다. 코로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 격리된 상태를 안전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신념은 실제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연결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살려낸다. 대구 집단발병 때 의료진을 비롯해 방역에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극복이 분리와 격리만이 최선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교회 내에서도 코로나로 취약해진 성도들을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소원했던 공동체와 온오프라인으로 재연결되어 공동체 영성이 회복되고, 격려와 지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 코로나로 잊고 있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영성 지향의 삶이다. 최근 기독교인에게 개인 신앙에 질문을 던지는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자들이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성경과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독교 상담자로서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상담현장에 있다 보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목격하게 된다.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처럼 우리의 삶에서 쓸모가 있다. 불안과 걱정은 무언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기도 한다. 분노는 타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외로움과 허무함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기독교인을 각성시키기도 한다. 슬픔은 우리의 마음속 기대와 소망을 알려주며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며, 그 마음에서 진정한 나를 알게 된다. 진정한 자신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마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길목인 자신의 모든 감정에 민감하고, 솔직하게 반응해주고 돌봐주기를 바란다.

■ 순예배 간담회 참가 후기



/ 장미진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우리 ‘여성 낮순’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인 2명과 가정주부 6명으로 총 8명이 함께 삶을 나누고 있다. 코로나19가 극성이던 3월 중순부터 교회의 방침에 따라 우리 순도 화상으로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순간담회를 실시했다. 우리 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 설문에는 4~5명이 참여했고, 순예배 간담회에는 3명이 참석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가정학습과 본인과 가족의 건강 돌봄 등의 필요로 순모임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 순모임에 대한 흥미가 점차 줄어드는 시기였고, 설문조사와 순예배 간담회의 익숙하지 않은 주제와 진행 등이 참여 동기를 잃게 했기 때문이다.

그룹에도 함께 모인 순원들과 함께 순예배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순예배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안건을 나누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야겠다는 것, 가치와 우선순위가 이전과 달라지고, 세상에

더 나은 교회, 예배, 순모임을 위하여

서 교회로 시선이 옮겨졌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지구 전체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함께 이겨내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 등을 나눴다.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순원들이 많은 것이 아쉬웠다. 또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영상 순모임과 간담회까지 진행해야 했기에 순장으로서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짧아지다보니 서로가 연결되는 느낌이 부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순모임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함이 몰려오기도 했다. 코로나 이전의 만남과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온 교회를 위한 방안들이 성도들의 기도 위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 하루 빨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 순예배 간담회 참가 후기



/ 서승옥 권사(고양은평공동체)

‘끝은 있는 걸까?’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사태가 다음 주면 끝나려니 했었다. 코로나19 사태는 나로 하여금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때를 생각해보게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지금 왜 그러시는 걸까?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것 같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면서 악수조차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 사태가 참 씁쓸하다. 그러나 이 씁쓸함조차 감사한다. 왜냐하면 살아있어서 그런 감정도 느끼는 것이니까.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를 바꿔놓았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변했다.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다가는 큰일난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지만, 지금은 모이면 안 된다. 서로 친밀하게 안아주는 것도 안 된다. 공동체 개강예배도 못 드렸고, 순예배 때도 만나지 못한다. 아이들 졸업식은 온라인으로 했고,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했다. 이제는 면대면이 안 된다.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갈 때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예약해야 한다. 교회 와서는 로비에서 휴대폰 바코드로 나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

확인시키고, 자리에 앉아서 QR코드를 찍어서 전송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비인간적인 절차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예배당에 갈 수 없었던 지난 두 달 동안 교회에 가고 싶어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른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된 날 눈물이 쏟아져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화면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적이고 감사였다.

지난 2주 동안 순예배 간담회를 실시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고 나서 우리는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다. 매일매일 힘든 시간 가운데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많이 변해서 당황스럽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잡고자 한다. “네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너의 가정을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길이다.

■ 하늘대학부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 간증



/ 이원기 형제(하늘대학부)

그러나 청년들이 기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하늘대학부에서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를 시작했다. 주말과 주일을 포함해서 매일 밤 11시부터 약 20분 동안 진행된다.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 인도자는 나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이다. 나는 지난 2월 말부터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거나 반가운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과연 매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치지 않을까, 혹시 이것을 준비하는 데 개인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건 아닐까하는 고민이 컸다.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인도자로 함께 섬기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올해 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레 6:9)는 말씀에서 비롯된 비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크고 작은 사역들이 무기한으로 중단되면서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

다. 내가 꺼뜨리지 않고 지켜야 할 불, 그 예배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가 되어야 할지 알지 못해 두리번거렸다. 그러던 중에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 인도자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곳이 바로 내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불이라는 생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어쩔 수 없이 20분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20분이 내게 주는 영적 유익이 참으로 크다는 걸 느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던 마음이 컸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 시간을 내어드렸던 다니엘 같이 하늘대학부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리라고 믿는다.

시대가 어렵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도한다.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모여 기도할 것이다.

■ 내가 만난 하나님



/ 최현우 형제(J4U공동체)

나를 신앙도 관촬고 사역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돌아보니 자만이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을 때 교회에 오고가는 시간이 줄어서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늦잠을 자고 예배를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5-6).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습이었다. 왜 나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묻고 기도했다. 그 이유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다. 누구보다는 돈을 더 벌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연습

며 비교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나의 모습을 회개했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요즘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삶이 귀해졌다.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적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언젠가 또 다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39).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꾸준하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로칼럼

어깨를 내어주는 세상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돌담은 자연 속에 있는 돌로 쌓은 담장이다. 돌담은 큰 돌을 먼저 쌓아 놓고 틈새마다 작은 돌을 끼워 넣는다. 강풍에 무너지지 않도록 틈새에 넣는 돌은 납작하거나 둥글거나 뼈죽하더라도 다 들어

갈 곳이 있다.

“세상에 쓸모없는 돌은 하나도 없다”는 옛 말처럼 돌담에는 필요하지 않은 돌이 하나도 없다.

돌담과 우리 삶은 무엇이 다를까. 돌담은 큰 돌 작은 돌 할 것 없이 돌 하나하나가 서로의 지하고 맞물려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돌들은 기대려고만 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 주면서 견딘다. 바람이 지나가도록 길도 터준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떨까. 우리 삶도 돌담처럼 타인의 어깨를 빌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서로서로 어깨를 내어주고 맞춰 줘야만 살아갈 수 있다. 반듯하고 격이 있어 틈새 사

이로 사람 냄새가 나면 더 좋다.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두 다리가 없었다.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은 척추장애인,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팔을 쓰지 못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명작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드라마 ‘블랙(Black)’의 첫 자막에 이렇게 쓰여 있다.

“혼자하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적지만 함께 하면 아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Alone we can do so little together we can do so much.)

돌담은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의 도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도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들이 서로가 연대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없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 주고 손을 내밀어 잡아 주어야 넘어지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몸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 주어야 할 때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주님의 예배당이 참 좋다!

김숙경 권사
(S브릿지공동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나는 옥수수 죽 배급을 받아보고,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옥수수빵 배급도 받아봤다.

선하신 아버지가 사기꾼들에게 서울 2층집을 뺏기고 근교로 이사 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을 쓰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 흰죽거리를 먹었던 격변의 시기를 살아오며 나의 유년 시절은 땀땀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갔던 행복한 추억 덕분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억누르지 못했다.

노래를 좋아했던 나는 찬송소리에 이끌려 7살 어린 나이에 혼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교회 교육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냈다.

25살 되던 해에는 주일 저녁예배 고등부 성가대를 지휘하고, 주일성수를 한 다음 월요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나에게 하나님과 교회와 주일예배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일에 교회를 못 간다니...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고 부푼 가슴을 안고 당당한 걸음으로 사랑하는 빨간 벽돌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당을 향해 걸어들었다. 교회 앞에는 나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온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껏 사용했던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당혹감이 들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빨려 들어가듯 도달한 신세계 같았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두렵지는 않았다.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닐이 쳐진 교회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성도님의 안내를 따라 바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순간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며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의 바코드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또 예배당 좌석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에 스캔됨을 기억하고 더욱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왔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계속 기도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우리 삶 속에 만연되어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기주의와 타성에 젖어 교만과 자만으로 퇴색되었던 믿음의 탐이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하소서!”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되찾고, 각 성도가 지교회로 세워져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가정 이 회복되고,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나는 개개인이 바른 교회로 세워져 도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또 함께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펼쳐 나가도록 모이게 하신 예배당이 참 좋다. 크기와 모양과 상관없이 예배당은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언덕 위에 있든, 마을 어귀에 있든, 도시에 있든, 산골짜기에 있든, 예수님이 달리셨던 구원과 사랑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은 어디에서든 귀하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처음 보아도 반갑고, 어여쁘다. 예배당에서는 주님의 펼쳐진 권능의 옷자락 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 또 예배당에서는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은혜의 교제와 삶을 나눌 수 있다. 나는 정말이지 주님의 예배당이 참 좋다!

신앙에세이

배행삼 목사
(하늘대학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나는 매일 아침 신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신촌에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20~30명의 청년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집이 동쪽 끝에 있어 신촌까지 이동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나에게 아침은 늘 분주했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에 가야 하는데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도로 위에서 서 있는 차들은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움직이지

않는 차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점점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리다가는 설교에 늦게 될 것만 같았다. 초조함이 극에 달한 그 순간 차 안으로 빨간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더니 차 유리창 밖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내며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3년 넘는 시간 동안 신촌으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한 번도 일출을 본 기억이 없었다. 항상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못했다. 딱 한 번만 고개를 돌려봤다면, 잠깐만 걸음을 멈추었다면 볼 수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 왔다.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조금함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게 일출을 보여주시며 “잠

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차가 멈춘 그 시간 이제껏 나에게 새벽기도는 단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은혜가 사라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잠깐의 멈춤이 나를 돌아보고, 감사와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따금 우리에게 그 걸음을 멈추라고 하신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놓치는 것이 있기에 잠시 멈춰 주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비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멈추셨다. 우연히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하신 것이다. 그 멈춰 선 자리에서 야곱에게 하늘까지 닿아있는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그 위를 오

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벤엘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도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앞만 보고 분주하게 달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창 28:15)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며 보낸 21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멈추어 버렸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라고 보내시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왜 이 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셨을까? 지금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단순한 영혼의 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다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생명(영혼), 뜻, 힘을 따로따로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 성자들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열된 것입니다. 때로 마음은 다하지만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뜻은 다하지만 영혼은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는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해야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끊깁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다. 또 행동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데 왜 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힘을 다했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영역을 각기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다하여 사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하여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본래 목적

으로 돌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내 생명, 내 영혼, 내 뜻과 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때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영혼이 단순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합니다. 자유하고 날마다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영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헛것에 불과하고, 한숨에 불과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순한 영혼 되게 하소서”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돌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는 것이다”(9~11절).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힘, 늘어나는 재물, 귀족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은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환경을 판단해 보면 이 시대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발전된 기술과 많은 물자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이 체제화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도 사람들은 기본적인 윤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천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삶의 목표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단순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단순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에서 단순한 영혼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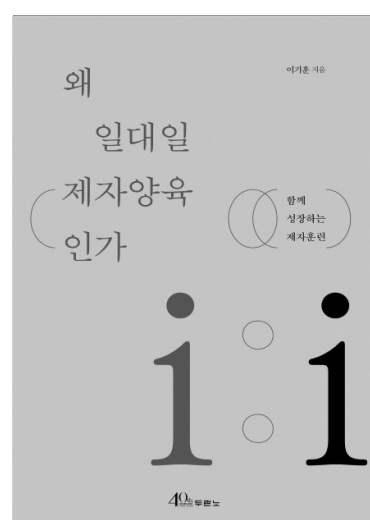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단순한 영혼입니다. 내가 단순한 영혼인지 아닌지는 예수님 말씀하신대로 새를 보고, 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떠오르면 단순한 영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순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간

함께 성장하는 제자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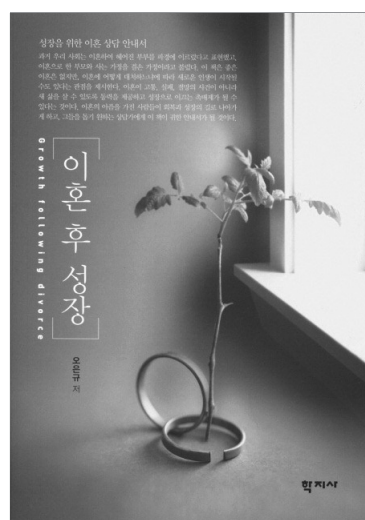
〈왜 일대일 제자양육인가〉
이기훈 저 | 두란노 | 13,000원

인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론적 토대와 성경적 근거뿐만 아니라 저자의 체험과 훈련에서 건져 올린 구체적인 양육법까지 담고 있는 이 책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도입하려는 교회나 일대일 제자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 창립 초기부터 이어온 핵심사역 중 하나다. 〈왜 일대일 제자양육인가〉는 일대일 제자양육의 의미와 필요성은 물론이고, 양육자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양육 노하우까지 제자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성장하는 제자훈련’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제자양육이 훈련을 받는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을 둔다. 양육자의 변화와 성장에는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은 동반자의 영적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진다.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성장한다.

저자는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상에서의 예배와 개인의 영성이 강조되는 요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혼 후 성장〉
오은규 저 | 학지사 | 19,000원

터 이혼 후 겪는 어려움, 적응과정, 성장방법까지 저자가 상담한 사례들과 심리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혼을 경험한 가족, 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 이혼 가정에 대해 이해하고 돕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혼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이혼이라는 고통은 해석하기에 따라 성장의 경험이 된다.”

어쩌면 우리는 이혼이 보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이 흥행하는 것을 보면 이혼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와 가까워진 이혼은 크든 작든 스트레스 사건임이 분명하다. 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혼은 고통이 가득한 과정이기 때문일까? 이혼에 관한 많은 책들은 어떻게 이혼하지 않을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고만 살 수는 없다. 우리는 고통을 딛고, 혹은 고통과 함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혼 후 성장〉은 이혼이라는 고통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혼의 특징부

CGNTV

“CGNTV 해외지사를 응원해 주세요”

CGNTV 해외지사를 통한 미디어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일본 CGNTV



목회자 없이 모이는 무목교회가 많은 일본에서는 CGNTV가 교회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인력충원의 어려움으로 콘텐츠 제작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주 CGNTV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많은 한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CGNTV가 새롭게 보급하는 “드림온 플러스”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림온 플러스 : 인터넷 전용 수신기 설치를 통해 어디서든 HD화질로 CGNTV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만 CGNTV

개국 12주년을 맞아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면서 새로운 시청자와 후원자 발굴에 어려움이 큼니다. 그동안 쌓아온 중화권 미디어 선교의 비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태국 CGNTV



태국 정부에서 집회 금지를 명령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CGNTV를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원하는 교회가 많지만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CGNTV가 태국 교회 온라인 예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인도네시아 CGNTV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급속하게 확산되어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촬영과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